



P.i.a.n.i.s.t

젊은 예술가 시리즈 [26] 피아니스트 손열음

완성을 향해 정진하는 국내산 영재 연주자

이석렬 | 음악평론가

만 스무 살의 영재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국제무대와 국내무대 모두에서 밀도감 있는 연주를 보여주고 있다. 보기 드문 순수 국내산 연주자 손열음이 지난해 발표한 쇼팽의 연습곡 음반에는 젊은이의 자신감과 신선한 감흥이 투영되어 있다. 지금 같은 국제화 시대에 영재 연주자 손열음을 아끼고 진정한 대가로 키우는 일은 우리 사회의 몫이다.

손열음의 음반을 듣다보면 그녀의 타건으로 펼쳐지는 음들이 견고한 유기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 하나하나를 분명한 인상으로 발현시키는 능력, 여기에 19세 젊은이가 뿜어내는 신선한 감흥이 연주에 매력을 더하는 것이다.



이제 만 스무 살이 된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국제무대와 국내무대 모두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여 안정되고도 인상적인 연주를 들려준 이 젊은 연주자는 그날의 공연을 기점으로 해서 세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됐지만, 사실 그녀를 주목해 왔던 한국의 음악인들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서울과 대전 콘서트에서의 열광은 일본 NHK홀로도 이어졌고, 연주회에 초청됐던 일본의 음반사 직원들은 콘서트가 끝난 뒤 한국지사에 전화를 걸어 손열음의 프로필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젊은 연주가는 대형 무대에서도 주눅이 들거나 흐름을 놓치는 법이 없으며, 언제나 분명한 인상을 표현하면서 평상심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순수 '국내산' 영재 연주자

필자는 2003년 봄에 TV 중계로 손열음이 박은성 지휘의 수원시향과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협연하는 모습을 본 일이 있다. 연주자의 기교가 최상의 수준에 올라야만 연주가 가능하다는 이 대곡을 손열음은 별다른 동요 없이 정연하게 풀어갔다. 손열음은 깔끔한 터치로 분명한 인상들을 펼쳤는데, 눈을 감고 들으면 상상 속의 전원이 맑게 펼쳐지기도 하는 낭만적인 감흥이 있었다.

타건(打鍵)에 배인 감성은 상당히 뚜렷하면서도 생동감이 있어서 당시 18세 피아니스트가 펼치는 화려한 소리 모자이크가 청중들에게는 흥분과 기대로 다가왔을 것이다. 국내 음악팬들에게 이 무대는 그들이 실황연주로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인물을 발견했다는 즐거움을 주었다.

손열음의 경력은 세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나 간단하게만 추려보자. 그녀는 고등학교를 거치지 않고 만 16세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과정에 입학한 전형적인 영재 연주자 출신이다.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김대진 교수의 사사를 받고 있다. 2002년 제53회 비오티 콩쿠르 피아노 부문 최연소 1위, 2001년 에틀링겐 영 피아니스트 국제 콩쿠르 시니어 부문 최연소 1위, 1999년 오벌린 국제 콩쿠르 시니어 부문 최연소 1위, 1997년 차이코프스키 청소년 국제 콩쿠르 최연소 2위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올해 2005년에는 제11회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했다.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고 있는 손열음

왼쪽페이지
영재 연주자 출신 손열음은 만 16세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과정에 입학했다.



손열음의 협연 무대는 어느 연주자들보다도 세인들에게 각인되는 강도가 크다. 청중들에게 그만큼 밀도감 넘치는 무대를 선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세인들의 관심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녀가 아직까지 외국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순수 ‘국내산’ 연주자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에 오른 손열음 관련 문구들에는 그녀가 순수 국내산 연주자라는 데 관심을 보이는 문구가 적지 않다. 오랜 동안 세계무대와 국내무대에서 각광받은 한국의 연주자들은 거의가 외국 유학을 다녀온 유학파가 주류를 이루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외국유학을 거치지 않고도 국내무대와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음악성을 겨룰 수 있는 인재를 한국의 교육계는 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일종의 도전적 맥락 차원에서 손열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스스로 지식 체계를 쌓았던 어린 시절

손열음이 음악적으로 선천적 재능을 가진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손열음 본인이 말한 어린 시절 이야기는 그녀가 사물을 보고

진정한 예술가, 진정한 미래의 대가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보이지 않는 보살핌이 필요하며, 혹시라도 영재 연주가 손열음이 슬럼프를 겪게 된다면 많은 이들이 진정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는 풍토가 필요하다.



세상을 읽는 바가 다른 어린이들과 다른 면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어린 시절 집 근처 상가에서 서점 주인의 권유로 역사책을 많이 봐서 역사 지식의 중요성을 이미 인지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본인 스스로 필요한 지식을 찾아가는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스로 지식 체계를 쌓을 줄 아는 어린이였다는 것이다.

자신의 환경을 생산적인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의 머릿속에 무엇을 입력시킬까를 고민하지만, 아이들 스스로 발전적인 지식을 찾아가는 성향을 갖게 하기 위해 뚜렷한 묘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손열음은 음악 이든, 음악 외의 다른 분야든 자기가 찾아서 지식 체계를 쌓아갈 줄 아는 인재인 것이다.

현재까지 손열음은 특정한 악파나 작곡가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여러 시대와 국가의 음악가들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올해 1월 금호아트홀에서 열렸던 독주회에서도 베토벤의 고별 소나타, 프로코피예프의 소나타 7번, 슈만의 〈카니발〉, 라벨의 〈라 발스〉 같이 참으로 다양한 양식의 음악을 선사하여 청중들의 갈채를 받았다. 앞으로 손열음이 잉글리드 헤블러나 릴리 클라우스처럼 특정한 작곡가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려는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간다.

젊은 연주자의 첫 음반 〈yeol-eum son, Chopin Etudes〉

지난해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첫번째 음반으로 〈yeol-eum son, Chopin Etudes〉(UNIVERSAL, DU 7308)를 발표했다. 가정이나 실외에서 손열음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자료로는 아직까지는 이 음반이 유일하다. 이 앨범은 금호아트홀에서 녹음되었고 그녀의 스승 김대진 교수가 프로듀서를 맡았다. 19세의 젊은 연주자가 갖고 있는 자신감과 신선한 감흥을 쇼팽의 연습곡에 투영한 앨범이었다.

쇼팽의 연습곡 작품 19와 작품 25는 오랜 동안 피아니스트들의 훌륭한 모델이 되었고 동시에 치열한 도전의 장이 된 명곡이다. 수많은 감정의 스펙트럼들이 이어지고 그것들이 엮어지거나 대조를 이룰 때 역동적인 감정의 분출이 발생하는 걸작 중의 걸작이다.

모두 24곡으로 이루어진 이 두 개의 연습곡을 두고 격조 있는 피아니스트들은 자신들만의 형상을 부여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올해 1월 손열음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가졌다.

왼쪽페이지

2004년 손열음은 첫 번째 음반 〈yeol-eum son, Chopin Etudes〉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손열음은 특정한 악파나 작곡가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리고 과거의 해석과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엿보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이벤트식 부각일 수가 없으며 연주 행위를 통한 창조적 업적이라고 평가되어 왔다. 피아니스트의 음악성과 개성을 동시에 부각시켜 주는 대표적인 레퍼토리가 바로 쇼팽의 연습곡이라고 여겨져 온 것이다.

손열음의 음반을 듣다보면 그녀의 타건으로 펼쳐지는 음들이 견고한 유기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 하나하나를 분명한 인상으로 발현시키는 능력, 여기에 19세 젊은이가 뿜어내는 신선한 감흥이 연주에 매력을 더하는 것이다.

악센트와 분절, 다이내믹의 대비도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으면서 분명한 부조감을 나타낸다. 그리고 연주의 표상은 다른 연주자들의 평균치에 비해 날씬한 편에 속한다. 이점은 손열음의 지도 교수인 피아니스트 김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음악이 펼쳐지면서 나타나는 주제나 동기들을 분명하게 세분한 후에는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단단하게 결합시킨다.

어떤 이들은 손열음의 연주가 기교적인 면에서는 유창하나 감정적으로는 충만하지 않다는 평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손열음의 나이를 감안하면 아직 그런 평가를 내리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다. 감정적이거나 철학적 차원에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그런 점에서 시간의 흐름은 손열음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음반에서 불협화 음정들의 처리는 대범하면서도 깔끔하다. 7번 트랙 C장조에서는 템포를 상당히 빠르게 하여 다른 피아니스트들이 부여하는 형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8번 트랙 F장조에서도 그런 성향이 엿보이는데 자신의 손놀림이 자아내는 템포감을 충분히 즐기면서 음악의 음형들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다. 11번 트랙 Eb장조는 귀여운 인상으로 넘치는 감정을 드러낸다.

18번 트랙 G#단조에서는 어린이들이 장난감 레고 놀이를 하듯 소리들의 블록을 자유자재로 이동시키며, 23번 트랙 <겨울바람>에서는 양손의 움직임에 따라 펼쳐지는 두 개의 흐름이 현란하면서도 깔끔한 모습을 띤다. 시간상으로는나 공간상으로는나 소리들의 결합은 상당히 유연하고 정연한 것이다.

마지막 24번 트랙 C단조는 다른 연주자들처럼 어두운 공간 속에서 감성적 희열을 분출시키지 않는 모습이다. 녹음 당시 손열음의 나이가 19세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곡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성 피아니스트들과 내용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곡 C단조에서는 아래쪽에 위치하는 굵은 선율들과 그 위로 조각되는 얇은 선율들이 화려한 모자이크를

"진정한 깊이를 추구하는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석렬(이하 이) 자신의 삶의 방식이나 성격이 음악에 끼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손열음(이하 손) 음악가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향과 습관을 말해주는 데 나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제 음악처럼 제 성격도 열정적인 편이고 삶의 방식도 계획적이기보다는 즉흥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 한국에서만 교육을 받아 '순수 국내산 토종 연주자'라고 알려져 있고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으니, 김대진 선생님을 비롯해 그동안 사사받은 선생님들의 교육 방식에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손 김대진 선생님은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선생님이고 음악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큰 귀감이 되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은 이성적이고 예리한 통찰력과 감성적이고 섬세한 예술가적 면모를 동시에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선생님의 교육방식은 음악만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인데, 앞서 말했듯이 음악가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모든 면모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직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음악적인 단점도 저의 성향을 통해 파악하시고 같이 고쳐나가고자 하셔서 레슨은 단지 곡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은 성찰의 기회가 됩니다.

이 원주에서의 상가 서점 얘기에서 역사책을 탐독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역사 영역을 비롯해 음악 외의 학문 또는 예술 분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이 있는지?

손 음악 외에 관심 있는 분야로는 대표적인 것이 사학이고 그 외에 문학이나 그림 등에서도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역사는 너무 좋아했던 학문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나를 말해주는 이야기들에 흥미를 느껴서 접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 후로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세계의 역사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사로 시작하여 세계사, 중국사, 고대사 등 여러 가지 분야를 두루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어릴 때만큼 관심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기회가 된다면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또 어렸을 때는 독서를 음악보다 더 좋아해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닦치는 대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글 쓰는 것도 좋아해서 중학교 재학 시절에 전국대회 최우수상 등의 상을 탄 적도 있고 앞으로도 글은 음악과 연계되어서도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손열음이 보는 지금의 세계 음악계의 흐름, 그리고 거기에 따라 펼쳐질 연주 여정은?

손 클래식 음악은 순수음악으로서 대중음악과 달리 전시대에 걸쳐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런 클래식 음악에도 일종의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클래식 음악들도 세태에 걸맞게 기술적으로는 더

크고 더 빠르게, 음악적으로는 더 차별화되게 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연주하려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태되어 가는 클래식 음악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품성을 키우기보다는 진정한 깊이를 추구하는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 쇼팽의 연습곡 CD를 녹음할 때 다른 연주자들과 차별화하고 싶었던 점은?

손 연습곡이라는 성격 때문에 자칫 단순하고 무미건조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곡들이 지금까지 최고의 연습곡집으로 추앙받는 것은 '음악적인 내용이 더 훌륭한' 연습곡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곡 하나하나가 주는 음악적인 색채와 쇼팽 음악에 담긴 기본적인 정서가 더없이 매력적인 곡들이므로 음악적인 내용들을 더 잘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 쇼팽의 연습곡집들은 내가 약 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공부해 왔습니다. 특히 5~6년 전부터는 한 곡 한 곡에서 얻을 수 있는 기술 향상의 목적보다 전체를 마스터피스로서 공부하는 것에 주력하여 콩쿠르나 연주회 등에서도 전체를 즐겨 연주했습니다. 곡에 대한 나의 이런 성향을 음반에도 담고자 했습니다.

이 뉴욕 필하모니, 혹은 기타 오케스트라들과의 협연에서 인상 깊었던 추억은?

손 세계 각국의 오케스트라들과 함께 연주하게 될 때면 각기 다른 개성에 깊은 인상을 받곤 합니다. 보통은 짧은 리허설 때문에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그리고 나 사이의 이견을 좁히거나 상대방의 성향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하기 마련인데 처음에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연주할 당시의 짜릿함이 더할 때도 많습니다. 얼마 전 도쿄필과의 협연에서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2주 만에 연습해서 연주해야 했는데 물론 장기간 연습한 곡들처럼 익숙한 맛은 없었지만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올해 남은 연주 일정에서 특히 기대되는 것들은?

손 남은 연주 일정으로는 대전시향, 원주시향, 부천시향 등과의 협연과 독주회 등이 있는데 지방에 가서 연주하는 것은 항상 새로운 느낌이라서 좋습니다.

이 현재의 입장에서 음악 예술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나? 그리고 음악관은?

손 특별히 거창한 음악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스타가 아니라 오랜 생명력을 지닌 좋은 음악가가 되어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싶습니다.

(본 인터뷰는 연주자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이메일로 이루어졌습니다.)



NHK 홀에서 열린 연주회에서의 모습

이루고 있다.

한국의 젊은 피아니스트가 쇼팽의 연습곡을 첫 번째 음반으로 출시한 것은 적지 않게 의미가 있는 일이다. 세계적으로도 쇼팽의 연습곡 녹음을 차후로 미루곤 하는 피아니스트들이 있곤 하는데, 18살 때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스타니슬라브 부닌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여서 그는 30대 초반까지 쇼팽의 연습곡 녹음을 미루어온 연주자였다.

손열음의 쇼팽 연습곡 음반을 부닌의 쇼팽 연습곡 음반(EMI CLASSICS, EKCD-0439)과 비교하여 감상한다면 곡 해석상의 확연한 차이점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둔중한 질량감을 바탕으로 하여 운동감을 부여하는 부닌과, 경쾌한 운동감을 우선시하면서 적절히 질량감을 조절하는 손열음과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스타일상으로 두 연주자의 중간 정도를 꼽는다면 아마도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쇼팽 연습곡 연주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대가 양성을 위한 관심 필요

손열음은 열네 살 때 해외 음악캠프에 참가했다가 비슷한 또래의 중국 피아니스트가 쇼팽의 연습곡을 치는 것을 보고 감명 받았다고 한다. 그후로 쇼팽의 연습곡은 그녀의 목표이자 과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녀의 말에 의하면 “치면 칠수록 깊어지고, 깨달아야 할 것이 많아지는 작품”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손열음이 가진 또 한 가지 성향을 발견할 수 있다. 무언가 오랜 동안 파고들어야 할 대상이 나타나면 그것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간파한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연주회를 위한 음악 외에도 계속해서 학습과 탐구를 요하는 음악들이 있다. 연주자들은 그런 작품들을 일상적으로 연습하여 다른 음악을 연주하는 데도 도움을 받곤 하는 것이다. 작곡가 슈만은 후배 음악가들에게 바흐의 평균율 피아노곡집을 부단히 연마하라고 권했으며,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을 일상적으로 부단히 연습했다고 전해진다.

연주자 손열음은 쇼팽의 연습곡 음반조차도 “완성을 향한 과정”이라고 말한다. 미래로의 발전을 향한 굵직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확실하게 정진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얼마 전 TV 스포츠 중계에서 한 해설가가 전해준 멘트가 생각난다. 경기 결과가 좋으면 분위기에 취해버리고 경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스스로 위안을 삼아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향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애기의 요지는 결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스포츠 해설가의 이런 지적은 영재 혹은 신동을 바라보는 우리네 성향과도 관련을 가질 수 있다.

매스컴과 대중들의 관심은 늘 스타에게 집중된다. 이제 손열음은 어느 정도 스타가 된 것이 사실이고 그녀의 연주를 기다리는 고정 팬도 확보하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결과가 좋기에 그녀를 향한 스포트라이트는 더욱 밝아지기만 하는 느낌이다. 그렇지만 진정한 예술가, 진정한 미래의 대가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보이지 않는 보살핌도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어린 연주자가 무대에서 성인들의 감성 세계를 재현해 내면 자못 놀라곤 한다. 성인들의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어린 연주자가 그런 연주를 펼친다는 사실 자체에 놀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학문과 예술, 스포츠 등의 영역에서는 영재 혹은 신동이라는 점 때문에 관심을 받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반짝하는 결과가 이어지지 못해 세인들의 관심에서 떨어져 간 경우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손열음은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런 재목을 아끼고 키우는 일은 우리 사회의 몫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광복 이후 한국의 양악계는 국제급의 순수 국내산 연주자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런 점에서는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금 같은 국제화 시대에서 국내산 인재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손열음의 성장을 도운 금호문화재단이나 그녀의 무대를 기다리는 음악애호가들 못지 않게, 많은 이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한국의 인재들을 성장시켜야 한다. 🌈

P.i.a.n.i.s.t
피아니스트 손열음

